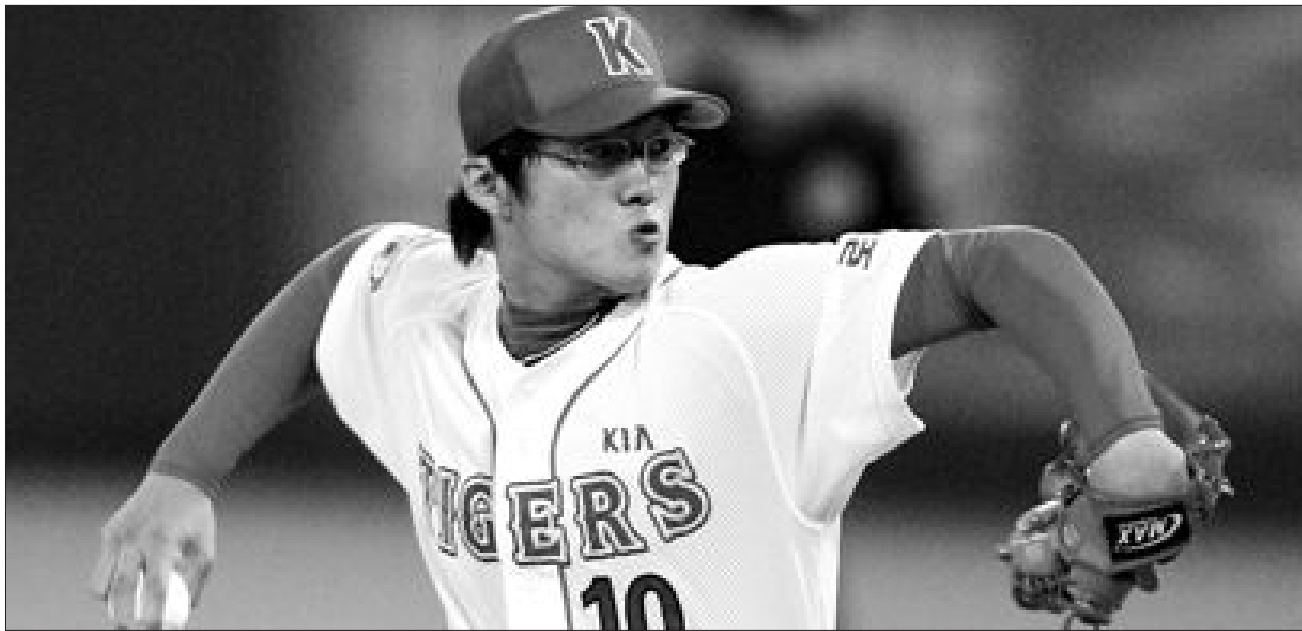


올해를 빛낼 광주·전남 스타

프로 2년차-KIA 투수 한기주



“한국시리즈 마운드에 서겠다”

“한국시리즈 무대에 서고 싶다” 2007 시즌을 맞이하는 ‘피터팬’ 한기주(20·KIA)의 바람이다. 한기주에게 지난 1년은 프로야구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했던 한해였다. 신인 사상 최고의 계약금인 10억원을 받고 KIA 유니폼을 입은 한기주는 2006 시즌 초반 선발 투수라는 특급 보직을 받았으나, 부진을 면치 못했다. 시즌 도중 2군으로 내려가는 수도도 겪었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였던 그에게 프로야구의 벽은 높게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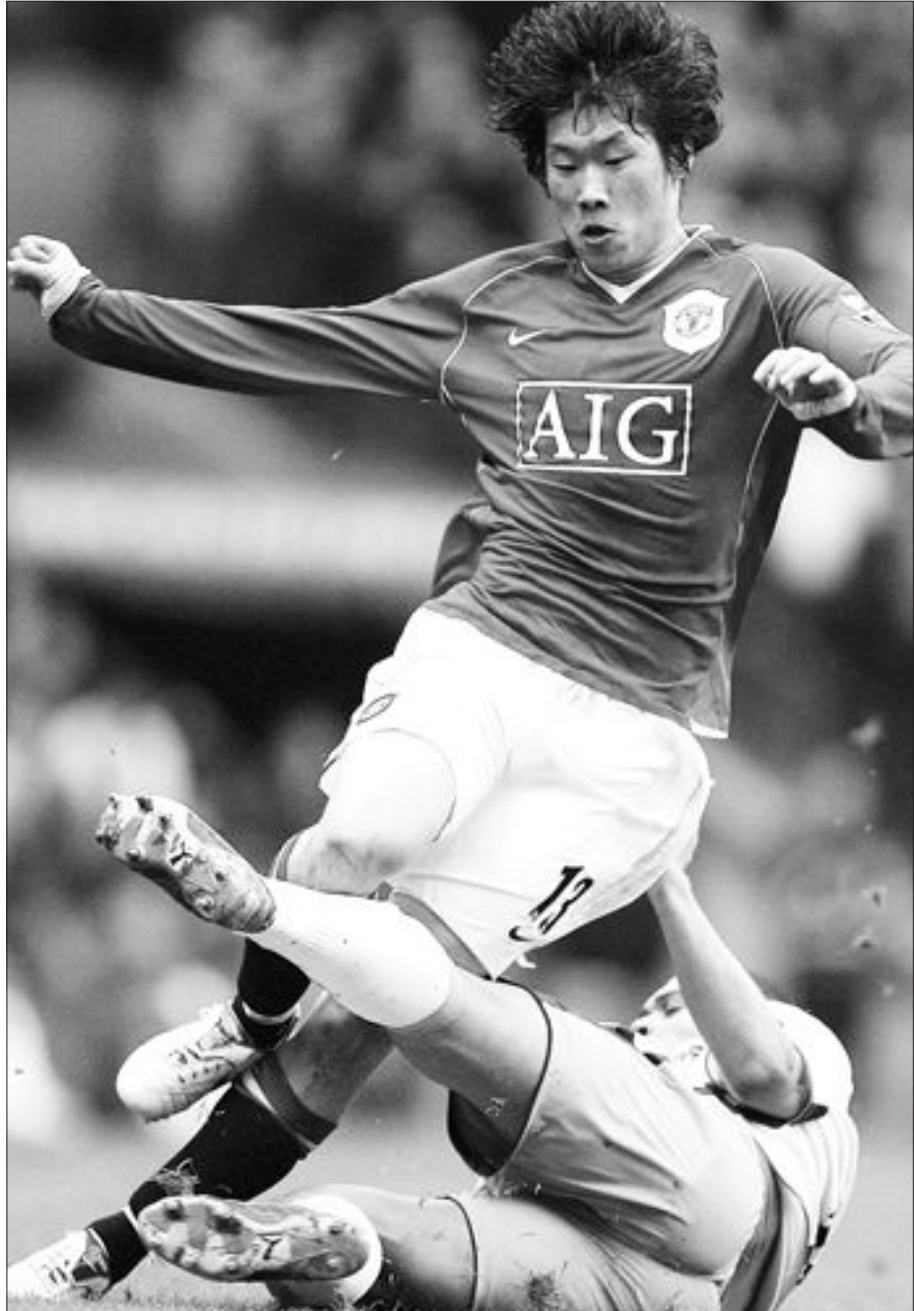
월 중순 이후로 공을 만져본 적이 없다. 대신 야구를 시작하는 초년병 시절로 되돌아가 강철 체력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구단이 짜놓은 특별 관리조에 들어가 15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매일 공 대신 웨이트트레이닝 장비를 붙잡고 싸워야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을 이리저리 꼬는 ‘요가’라는 훈련도 경험했다.

“작년 시행착오는 큰 스승”

한기주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일본 스프링 캠프를 버리고 있다. 직구와 슬라이더가 주무기인 한기주는 단조로운 구질을 탈바꿈 할 수 있는 체인지업 등 변화구를 개발하고 연마할 계획이다. 스승으로 김봉근 투수코치와 김태원 전담 코치가 나서기로 했다. 프로 데뷔 2년차를 맞은 한기주는 “지난 시즌에 겪은 시행착오는 나에게 큰 스승이 됐다”면서 “이번 스프링캠프 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 팀과 함께 한국시리즈의 무대에 서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체인지업 등 변화구 연마 하지만 당시 이름조차 생소했던 같은 신인 류현진(한화)은 승승장구하며 한기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한기주는 결국 시즌 중반 선발에서 불펜 투수로 보직을 전환하며 재도약을 다짐했다.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 넘치는 기량을 맘껏 펼치며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의 일등공신이 됐다. 시즌 최종 성적은 10승(7구원승) 11패, 방어율 3.26. 44경기에 출전해 140.2이닝 동안 2천310개를 던졌다. 그것도 평균 시속 150km를 오르내리는 광속구를 뿌려

체력훈련에도 구슬땀 한화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도 3경기 에 모두 등판한 한기주는 시즌 종료와 함께 곧바로 어깨와 팔꿈치에 정밀 검진을 받았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큰 부상을 우려해서였다. 검진 결과 다행히 단순염증만 발견됐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한기주는 2006시즌이 끝난 지난해 10



박지성·이영표 ‘무난한 플레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이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무난한 플레이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맨유는 8일(한국시간) 새벽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끝난 FA컵 64강전(3라운드) 아스톤 빌라와 홈 경기에서 후반 10분 헨리크 라르손(37)의 선제골이 터진 뒤 후반 29분 바로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경기종료 직전 터진 올레 군나르 솔샤르(34)의 결승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두며 FA컵 32강전에 진출했다. 박지성은 이날 맨유 4-4-2 전술의 오른쪽 날개로 선발출전한 뒤 전반에만 세 차례 결정적인 골 기회를 맞았지만 끝 맛을 보지 못한 채 후반 25분 교체 아웃되면서 최근 5경기 연속 선발출전에 만족해야 했다. 토트넘 핫스퍼의 이영표도 이날 2부리그 소속인 카디프시티와의 FA컵 64강전에 선발 출전, 종료 2분전 교체될 때까지 무난한 플레이를 펼쳤다. 두 팀은 0-0으로 비겨 재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영표는 베누아 아쇼에코토와의 주전 경쟁에서 확실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전반 14분 어실론 백패스로 실점 위기를 내주는 등 아찔한 장면도 연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위)이 8일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FA컵 64강전 홈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의 윌프레드 부마로부터 태클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종수 대전행 확정

1년 넘게 소속팀을 찾지 못했던 ‘양광테러블’ 고종수(29)가 마침내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에 입단, 재기의 기회를 잡았다. 고종수는 8일 오후 대전 구단 사무실에서 입단 계약을 하고 2005년 말 전남과 재계약에 실패한 뒤 1년 넘게 이어왔던 무소속 신분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 귀네슈 감독 초특급 대우

고급 승용차에 45평 아파트까지

‘고급 승용차에 45평형 아파트까지’ 프로축구 FC 서울이 신임 사령탑인 터키 출신 세불 귀네슈(54·사진) 감독에게 ‘초특급’ 대우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FC 서울에 따르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터키를 3위에 올려놓은 같은 해 유럽 축구연맹(UEFA)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귀네슈 감독에게 국가대표 감독 수준의 대우를 준비하고 있다. 일단 서울은 지난 6일 입국에 맞춰 국내에서 최고급인 검은색 중형 승용차를 새로 마련했다. 감독과 항상 함께 다닐 수 밖에 없는 통역에게 운전용 차량도 구리시 GS웬퍼인 스파크 인근에 45평형 아파트를 전세(3억원 상당)로 빌렸고 수천만원을 들여 가구 및 집기를 새로 들여놓고 있다. 귀네슈 감독이 이날부터 강릉 전지훈련을



떠나고 곧바로 터키 안탈리아로 해외 전지훈련을 가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 모든 준비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소속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네슈 감독은 입국일인 6일과 7일에는 강남구 삼성동 한 특급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머물렀다. 연봉의 경우 구단 측이 자세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K-리그에서 활동 중인 다른 사령탑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FC 서울의 한 관계자는 “귀네슈 감독이 월드컵 4강을 이끌어 낸 ‘명장’인 만큼 명성에 걸맞은 예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9일(화) ▲제6회 전국남녀 피겨 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14 : 00-MBC ESPN)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신한은행-금호생명)(16 : 50-SBS스포츠) ▲프로농구(우리은행-SK)(18 : 50-Xports)
- 10일(수) ▲갈릴레오 축구(리버풀-아스날)(04 : 35-KBSN Sports)

러시아축구연맹 히딩크 감독 첩시행 부인

러시아축구연맹은 거스 히딩크(61)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첩시의 사령탑으로 옮길 것 같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8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빌랄리 무트코 러시아축구연맹 회장은 러시아 라디오 ‘에코 모스크바’와 가진 인터뷰에서 “히딩크 감독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엄연

히 러시아대표팀의 사령탑이다. 계약이 유효하는 한 어느 누구도 그를 다른 자리의 후보로 거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네덜란드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워크’는 첩시 구단주인 러시아 석유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히딩크를 영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노총각 장가 보내고 사라진 여성 대리기사 이야기!
060-700-3658
[Includes a group photo of several women and a list of services]

30만원대 히터가 무릎 꿇었다! 독일형 베커 벽난로형 히터!
가격, 난방비, 소음, 냄새, 그걸음까지 30만원대 히터를 능가하는 벽난로형 히터가 99,000원
[Includes an image of a heater and contact information]